

S코드 도입... 거수기 벗고 '지배구조 선진화' 단추핀다

(스튜어드십 코드)

2018 新 주총시대

<下> '주주권 강화'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자산운용·자문사등 27곳 도입
의결권 행사내용·이유 공시해야
S코드 도입 전 '부결' 사례 많아

올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연기금 등 주요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여토록 유도하는 의결권 행사 지침)가 도입된 후 첫 주주총회가 열린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약속한 기관은 의결권 행사 이유를 무조건 공시해야 하는 만큼 상장사 의안에 대한 명분 없는 찬성 혹은 반대가 불가능해졌다.

상장사 입장에서 주총 안건 결의가 보다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오히려 국내 주요 그룹사들은 주주 권리 강화를 약속하고 나섰다. 주주권 강화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 명분 없는 안건 "통과 더 어려워질 것" 11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총 24개 자산운용사(PEF 등 포함)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 또 2개 자문사, 1개 증권사를 포함해 총 27개사가 스튜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다. 향후 도입을 약속한 기관도 42개사에 이른다.

27개 기관투자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주총을 맞이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다는 것은 이를 전담하는 인력과 제도를 모두 구축했다는 의미다. 아울러 웹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내용과 이유에 대해서 빠짐없이 공시해야 한다. 안건에 대한 명분 없는 찬반이 불가능한 이유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 투자자 목록(2018년 3월6일 기준)>

구분	기관투자자명	합계
자산운용사 (PEF등 포함)	·뉴레이크엘라이언스매니지먼트(주) ·KB인베스트먼트 ·KB자산운용 ·동양자산운용(주) ·메리츠자산운용(주)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스틱인베스트먼트(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주) ·와이케이에이인베스트먼트(주) ·웨일인베스트먼트(주) ·이상파트너스(주) ·(주)엔베스터 ·(주)유니스캐피탈코리아 ·(주)케이케이엘파트너스 ·(주)에스인베스트먼트 ·컴퍼니케이파트너스 ·큐캐피탈파트너스 ·트러스트자산운용(주) ·하이자산운용(주)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한국투자신탁운용 ·Dalton Investments LLC ·Oasis Management Company ·Robeco	24개사
자문사	·서스틴베스트 ·제브라투자자문	2개사
연기금		
보험사		
증권사	·KB증권	
은행		
Total		27개사

주1) 3월8일 정정사항 : 자산운용 (25개사→24개사로 정정), 증권사(0개사→1개사로 정정)

한국지배구조원이 2014년부터 2017년 상반기 주총을 분석한 결과 새도보팅(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이 이용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전에도 이사회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많았다. 조사결과 161사에서 개최한 총 220회의 주총에서 이사회 제안이 부결된 것이다. 사내이사선임 부결건이 전체의 37.7%로 가장 높았다.

더욱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상장사의 부결 사례도 38.6%(85사)에 달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50% 이상인데도 이사회 제안 안건이 부결된 회사(25사)가 존재했다. 대부분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는 감사(위)선임 안건이 문제였다. 즉, 외부 소수주주가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일목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원은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감사(위)선임의 건은 분석대상 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부결 사례가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기관투자자를 비롯한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충실한 의결권 행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가 제안한 안건의 적절성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며 "올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따라 기관이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주요 그룹, 전자투표제 도입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으로 개인 및 외국인 주주의 비중이 높은 주요 그룹사들은 안건 결의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은 이번 주총에 앞서 '주주권 확대'를 약속하고 나섰다. 주주권 강화를 통한 지배구조 선진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적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먼저 SK그룹은 주총 분산개최를 통해 주주들의 참여가 제한되는 부작용을 차단키로 했다. 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해 해외에 있거나 바쁜 일정으로 주총 참석이 불가능한 주주들에게 의결권 행사 기회를 제공했다. 앞서 SK는 '거버넌스 위원회'를 설립해 중요한 투자 및 합병·분할, 재무 관련 사항 등 주요 경영 사안을 사전 심의하도록 했다.

한화 CJ그룹 역시 상장 계열사의 주총을 분산해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현대차는 사외이사 후보를 주주들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임하는 방식의 주주권 강화를 약속했다.

정 연구원은 "국제기구인 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지배구조원칙(corporate governance principles)에서도 2015년 개정을 통해 기관의 수탁자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장을 구성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성규범(hard law·강한규제)과 연성규범(soft law·자율규제)들이 개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을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개 국가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하고 있다. 정부가 코드를 도입한 나라는 홍콩, 일본, 케냐, 영국 등 4개 국가이고 한국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는 모두 기관이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이름만 전달... 채용 관여 안해”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하나은행 채용 비리 의혹 해명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하나은행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단순히 전달했을 뿐 채용과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 있어 단순 전달과 추천, 압력행사를 정확히 가릴 수 없다는 점에서 최 원장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일단 전달했다는 사실 관계는 시인한 셈이 됐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 원장은 최근 불거진 채용청탁 의혹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있을 때 외부에서 채용과 관련한 연락이 와서 단순히 이를 전달했을 뿐 채용과정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하나금융 사장으로 있던 2013년 대학 동기로부터 자기 아들이 하나은행 채용에 지원했다는 전화를 받고 은행 인사담당 임원에게 그의 이름을 건넬 바 있다. 그는 최종 합격했으며, 현재 하나은행 모 지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원장은 은행 측에 이름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 점수 조작 등 부당한 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올해 적발한 하나은행 채용비리 역시 이런 기준으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은행권 채용비리 검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22건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으며, 이 중 하나은행이 13건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추천자 명단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추천 대상자 모두를 부정채용으로 본 것이 아니다”라며 “면접점수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채용요건에도 부합하지 않음에도 기준 신설 등을 통해 부당하게 합격시킨 사례만을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의 추천인 명단에 기재된 총 55명 중 6명에 대해서만 부정채용으로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피감기관인 하나은행에 “최흥식 채용비리” 증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금감원 검사때 발견하지 못했던 증거를 증명해 달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자구와 인류의 미래를 위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사람의 힘만으로 불가능한 일이 있기에
하지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기에
두산은 원격으로 제어하는 무인굴삭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술
자금은 사람을 돕는 기술이지만
미래엔 사람의 생명을 지켜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두산은 지금 내일을 준비합니다

두산건설 소형건설비 시장영유율 세계 1위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CX

두산은 시장영유율 세계 1위의 소형건설장비와 원격제어 첨단 무인굴삭기 개발로 자구와 인류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